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오늘 금요일 미 7월 물가 작년 비교 2.9% 상승 예상
- Bloomberg: 미 GDP 대비 250% 까지의 부채는 금리 상승 압력 안줘

[미국 금융]

- YahooFinance: 신용좋은 미 소비자들도 부채 상환 지체된다
- WSJ: 기술 종목들의 랠리 모멘텀이 힘을 잃는 조짐 보여

[무역전쟁]

- CNNBusiness: 트럼프 “향후 50일내에 가구에 대한 고관세 발표된다”
- WSJ: 미 백악관 경제 책임자 “미정부, 더 많은 기업에 투자 지분 늘릴수 있어”
- YahooFinance: 인텔 “정부 지분 투자가 국제 판매 해칠수 있어”

[오일]

- Bloomberg: 연준의 금리 인하 시사후에 오일가 상승세

[주택]

- Bloomberg: 7월 미 신규 주택 판매 건수 예상 웃돌아

[자동차]

- Bloomberg: 미 자동차 가격 비싸 융자기간 7년으로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테무, 예상보다 수익 감소폭 적어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Inflation to Edge Up as Powell Shifts on Job Market **오늘 금요일 미 7월 물가 작년 비교 2.9% 상승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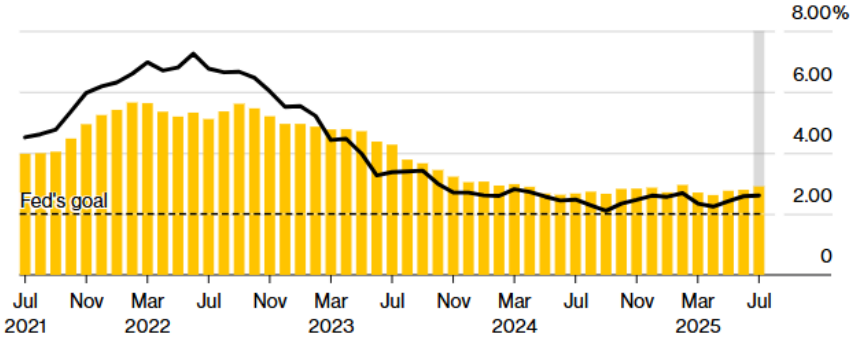
- 오늘 금요일 발표될 7월 개인소비지출 물가 지표는 작년 동월에 비해 2.9% 상승 돼 지난 5개월중에 가장 빠른 물가 상승 속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물가에 대한 관세 여파가 이제 분명히 보이는 상황에서 “일자리 시장에 대한 더 큰 리스크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물가는 지난 2월 이래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일 것으로 보이며 기업들은 관세 비용을 이제는 소비자들에게 더 전가할 수 있어 발표되는 관련 지표는 9월 금리 인하를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코노미스트인 Anna Wong, Stuart Paul, Eliza Winger, Estelle Ou, Chris G. Collins는 밝혔다. 한

마디로 이번주 금요일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인 식품과 에너지 가격 제외한 개인 소비 지출물가지수가 주목된다.

US Inflation Inching Away From Fed's Target

Pace of underlying price pressures seen edging up to fastest in five months

Change in PCE price index (YoY) Core PCE price index (YoY) Estimates



Sourc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Bloomberg
Note: Core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 price index excludes food and energy

Central Bank Rate Decisions This Wee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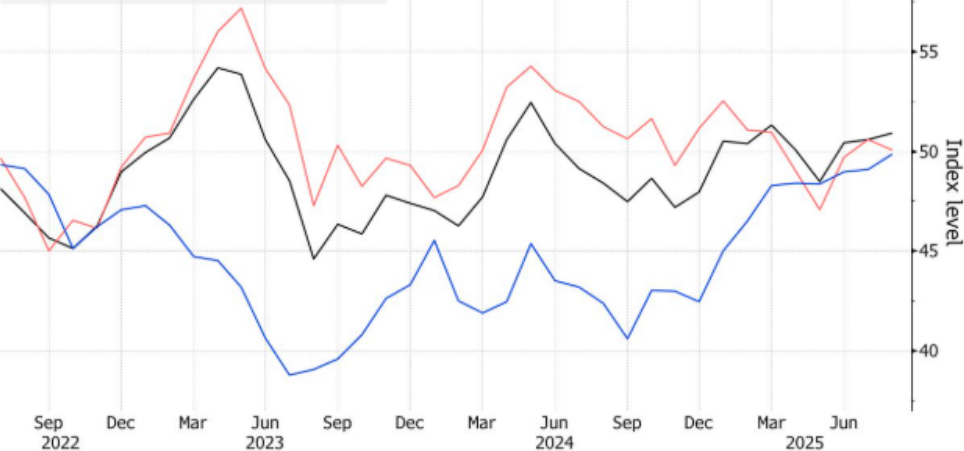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ource: Bloomberg
Note: Mapped data show rate decision schedules for distinct central banks

German Business Activity Impro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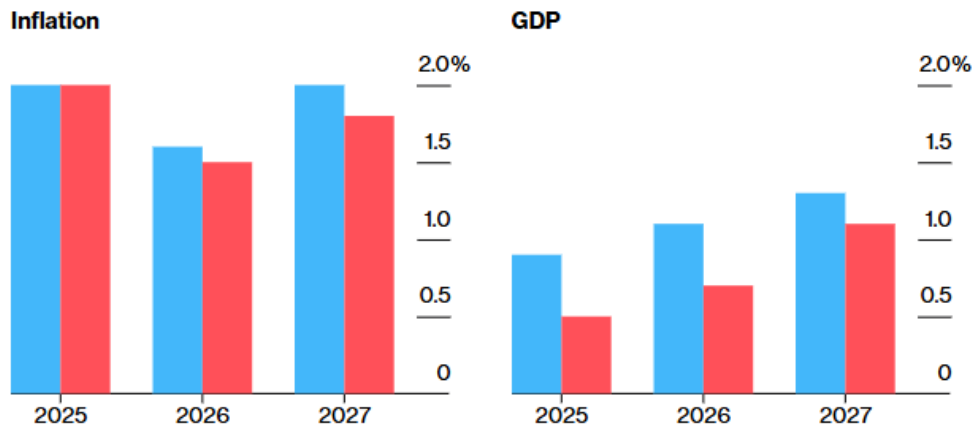
Composite PMI Services PMI Manufacturing PMI



Source: S&P Global Bloomberg

ECB's June Outlook for Europe's Economic Growth and Inflation

■ Baseline scenario ■ Severe scenario



Source: ECB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Debt-to-GDP of 250% Won't Push Up Rates: Jackson Hole Paper

미 GDP 대비 250% 까지의 부채는 금리 상승 압력 안줘

- 미 연방정부 부채가 GDP의 250% 까지 도달해도 금리 상승 압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연준 잭슨홀에서에서 발표된 보고서는 밝혔다.
- 그러나 이 보고서는 큰 조정이 없다면 부채 공급이 결국 부채 수요를 앞질러 금리 인상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 이들 보고서 이코노미스트들의 의견에 따르면 미 부채가 GDP의 250%까지 늘어나도 현재의 금리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려면 GDP의 10% 정도되는 정부 수입증가 및 지출라는 재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한편 작년말 현재 연방 부채는 GDP의 97%이며 이번 트럼프 감세법 통과로 오는 2034년까지 부채는 GDP의 117%가 될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YahooFinance: US consumers with prime credit are starting to slip on payments

신용좋은 미 소비자들도 부채 상환 지체된다

- 신용등급 회사인 VantageScore가 오늘 월요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고의 신용 등급을 가진 소비자들도 부채 상황이 늦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의 재정상태가 광범위하게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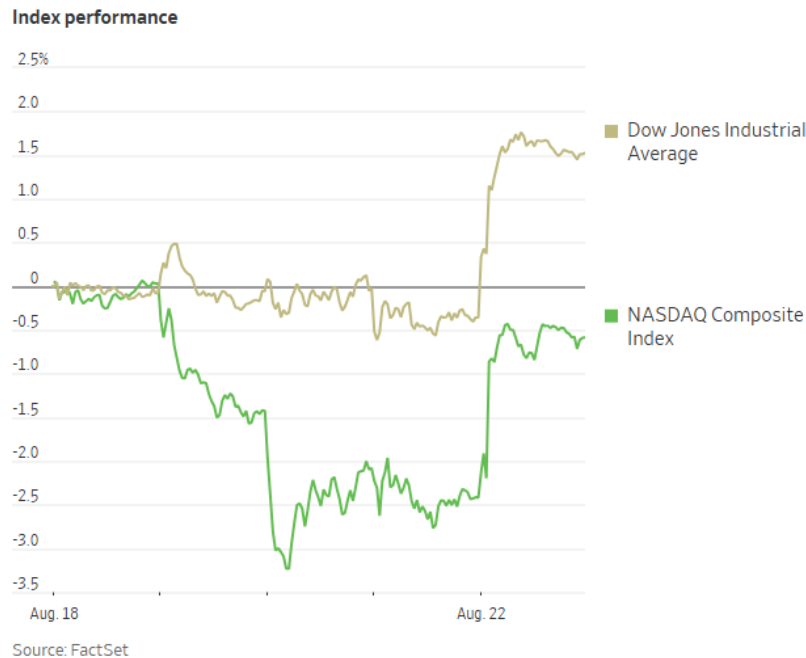
- 신용상태가 최고 그룹인 슈퍼프라임 그룹의 90일 이상 연체율은 작년에 비해 109% 증가한데 반대 프라인 그룹의 경우 작년 대비 47% 늘었다.
- 이 기관의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Rikard Bandebo는 재정적으로 탄탄한 그룹으로 간주되는 슈퍼프라임과 프라인 그룹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체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전반적으로 연체율은 높지 않지만 높은 신용등급자들조차 상황에서 부담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편 연체율은 자동차 용자와 모기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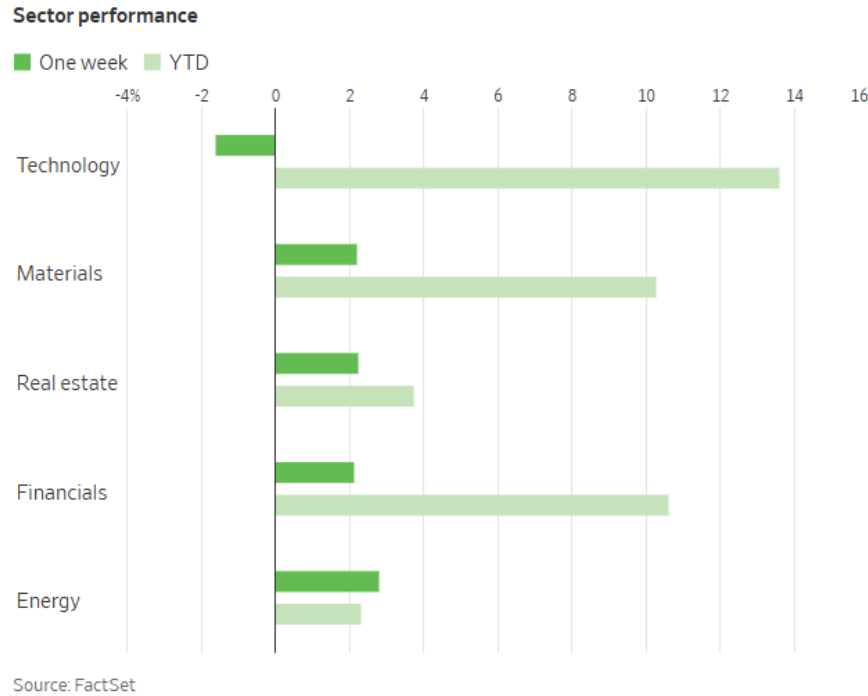
YahooFinance 기사

WSJ: Tech Rally Shows Signs of Losing Steam

기술 종목들의 랠리 모멘텀이 힘을 잃는 조짐 보여

- 금리 인하 전망 가능성 때문에 부동산과 은행, 제조업 분야 종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대 ‘매그니프센트 7’ 종목의 전망을 불투명해 보인다.
- 투자자들은 기술주 종목들에 대해 신중해지고 있는데 높은 주가와 AI에 대한 의구심, 다른 종목들과의 경쟁 때문이라는 것이다.
- 곧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기술 종목들에 대한 테스트가 될 수 있으며 일부 투자자들은 방어적인 투자 입장에서 기술주 종목 노출을 줄이고 있다.





WSJ 기사

[무역전쟁]

CNNBusiness: Higher tariffs on furniture to be announced within next 50 days, Trump says

트럼프 “향후 50일내에 가구에 대한 고관세 발표된다”

- 트럼프는 지난주 금요일에 관련 부처에 오는 10월까지 가구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 그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향후 50일내에 관련 조사가 이뤄지면 미국으로 향하는 가구에 대해 관세율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 그는 “이같은 관세 조치로 가구 제조 비즈니스가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미시건 및 미 전역에 회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Business 기사

WSJ: U.S. Could Take Stakes in More Companies, Hassett Says

미 백악관 경제 책임자 “미정부, 더 많은 기업에 투자 지분 늘릴수 있어”

-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인 Kevin Hassett는 방송 인터뷰에서 인텔과 비슷한 기업들에 대한 지분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조치들은 미국의 국가재원 조성 차원의 트럼프 방안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그는 또한 반도체 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지분 투자가 언젠가는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WSJ 기사

YahooFinance: Intel warns US stake could hurt international sales, future grants**인텔 “정부 지분 투자가 국제 판매 해칠수 있어”**

- 인텔은 오늘 월요일 “미국의 우리 회사에 대한 9.9% 지분 투자가 비즈니스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적인 판매를 비롯해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 회사는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미 정부가 보조금 1백10억불을 인텔의 지분 투자로 전화하는 것에 따른 새로운 위험 요소들을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이 같은 정부의 조치는 트럼프의 미국 보호주의 정책의 정부 관여로 볼수 있다.

YahooFinance 기사

[오일]**Bloomberg: Oil Edges Higher After Fed Signals Possible Interest Rate Cut****연준의 금리 인하 시사후에 오일가 상승세**

- 지난주 연준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후에 오일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브렌트유는 거의 3주만에 최고치, 그리고 서부 텍사스 중질유는 배럴당 64달러를 웃돌았다.
- 지난주 금요일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시사는 오일을 비롯한 여러가지 자산 상품의 가격 상승을 유도하 있다.
- 오일의 경우 금리 인하를 미 경제가 성장해 오일 수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동시에 파월 이 금리 인하 조치를 취하게 하든 일부 경제 역풍과 성장 의무심은 반드시 장기적으로 오일 수요를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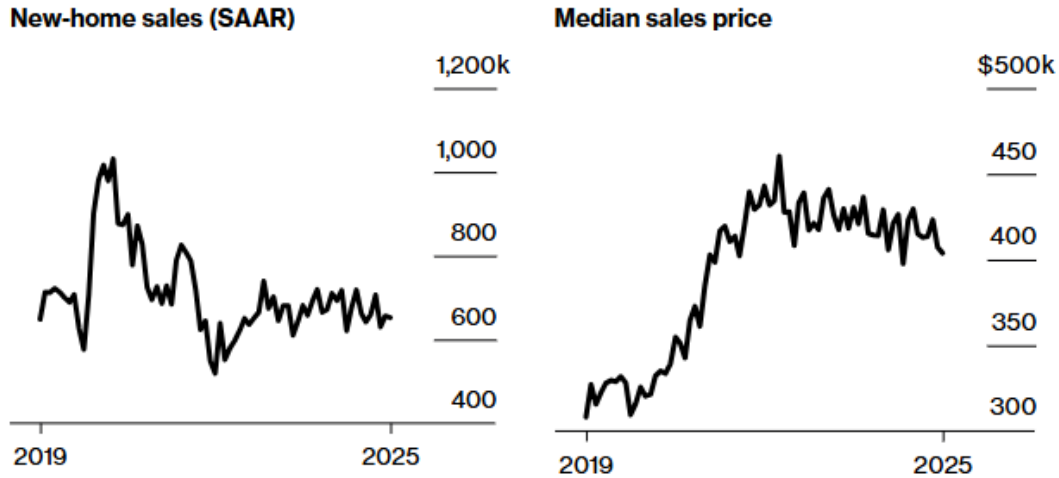
Bloomberg: US New-Home Sales Exceed Forecast Following Upward Revision

7월 미 신규 주택 판매 건수 예상 웃돌아

- 7월 미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예상치보다 앞섰다. 6월 판매 건수도 상향조정됐다. 판매 건수 증가 이유는 가격이 둔화되었으며 주택 매입 인센티브가 더 많은 구매를 유도했기 때문이다.
- 오늘 월요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단독 신규 주택 계약건이 연율 65만2천건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서부 지역의 강한 수요가 발생했다. 전문가 예상치는 63만건이었다.
- 판매 인센티브의 제공 비율은 이번 달에 전체 주택업자의 66%에 달해 팬데믹 이후 최고치였다.

US New-Home Sales Exceeded July Foreca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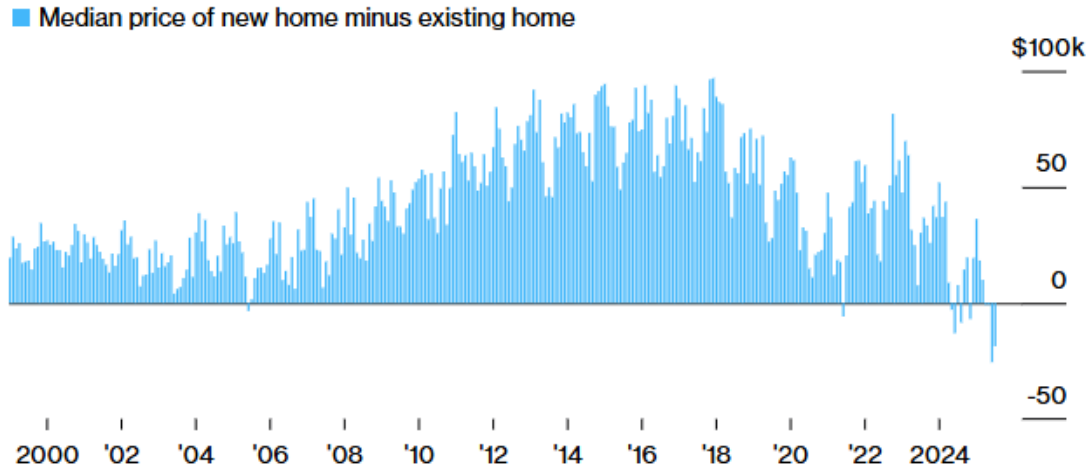
Lower median prices reflect more discounting by builders



Source: Census Bureau, Department of Housing & Urban Development

Prices of New Homes Comfortably Below Existing Properties

Builders are offering incentives to help move inventory



Source: Commerce Department,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Bloomberg 기사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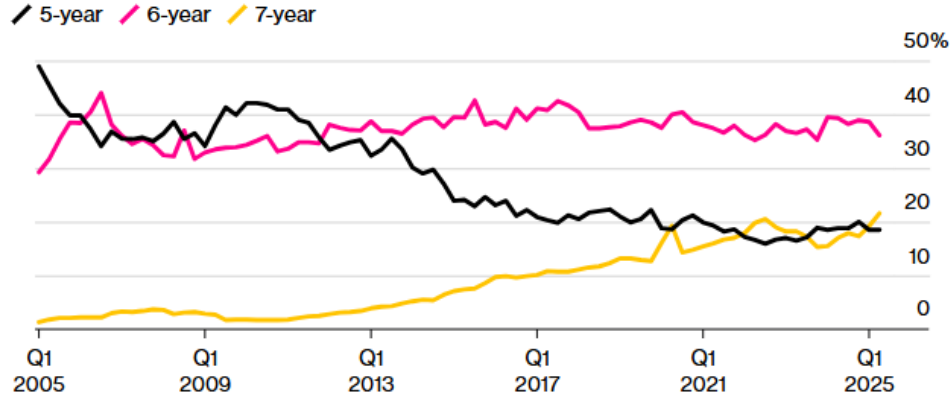
Bloomberg: Cars Are So Expensive That Buyers Need Seven-Year Loans 미 자동차 가격 비싸 융자기간 7년으로

- 자동차 구매 융자의 경우 올해 2분기에 21.6%가 7년 융자기간으로 늘어나고 이것이 대세가 되고 있다. 이같은 기간이 구매자에게 부담을 줄이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이 경우 실제 지불하는 이자액이 커지는 단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7년 즉 84개월 용자의 경우 평균 월평균 지출액이 1만5천4백60달러가 된다는 것이다.
- 심지어 일부 대출기관들은 8년짜리 용자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전체 자동차 용자의 1%에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Car Loans Get Longer

Seven-year loans used to be rare, but they're increasingly common despite their risks



Source: Edmunds.com

Note: Numbers reflect percentage of all car loans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Temu Owner PDD's Profit Falls Less Than Expected

테무, 예상보다 수익 감소폭 적어

- 저가 중국제품 기업인 테무의 PDD 홀딩스는 매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총 3백7억5천만 위안에 달하는 즉, 예상보다 수익 감소폭이 적은 3.9%를 달성했다.
- 물론 관세와 국내 내수 지원 압박이 수익을 둔화시켜 지난 2021년 하반기 이후 가장 낮은 둔화로 매출이 7.1% 성장한 1천39억8만 위안을 기록했다.
- 이 회사는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다른 시장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중국 내 다른 업체들로부터의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WSJ 기사

[보고서]

해고 안하지만 뽑지도 않는다...노동시장, 미국 경제 뇌관 되나

많이 해고하지 않지만 많이 채용하지도 않는 최근의 미국 노동시장이 미국 경제에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이런 노동시장의 취약성을 주목하고 있다.

9/7/25, 12:30 PM

Email from KOCHAM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고용주들이 근로자를 잘 해고하지 않지만, 새 직원 채용에도 별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노동시장의 취약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